전법 일기

## 중생 아파하는 그 곳에서 붓다볼 法音 전하고 싶어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과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은 단풍들을 보며 필자 또한 부처님 법 인연하여 먹물 들여온 시간만큼 이제는 부처님께 지은 빚을 갚을 일도 고민할 때가 됐음을 생각해본다. 오늘 나에게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밥값은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머물고 있는 봉녕사에서 마주치는 많은 대중들과 신도, 찾아가는 곳 마다 만나는 여러 인연들이 나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듯하다. 이런 귀한 인연들이 언제나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되어주고 삶의 원동력이 되어 준다.

봉녕사에서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어김없이 봉녕사 육화당에서 붓다볼 소리가 은은하게 도량 밖으로 새어 나온다. 필자가 진행하는 '붓다볼 힐링명상' 일요법회 시간이다. 붓다볼은 일반적으로 싱잉볼이라는 단어로 알려져 있다. 이 싱잉볼을 불교에서는 수행하고 법을 전하던 도구의 하나로서 붓다볼이라 부른다는 것을 알고는 '붓다볼 명상'이라 이름 붙였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아온 법회이다.

이런 붓다볼 명상은 봉녕사 템플스테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선명상 대중화 시대, 불교는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템플스테이를 통한 작은 쉼과 힐링을 제공한다.

필자는 오늘도 템플스테이에 온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자 붓다볼 앞에 앉는다. 스트레스에 찌든 직장인들, 학업에 지친 학생들 모두에게서 인생이란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들에게 붓다볼의 고요한 울림은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법문이 되어주기도 하고, 나와 우주가 하나 돼 공명하는 불이법의 진리를 전해주기도 한다. 분별이 없는 그 울림에 갈등이 소멸되어 가고, 무너진 몸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 사바세계 모든 중생들이 아파하는데 우리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

봉녕사는 수도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올해의 특별한 기억은 봉녕사를 찾아주셨던 주한외국인대사 분들과 유엔사령부 외국인 가족분 들에게 붓다볼 명상을 경험하게 해드린 것이다. 이들은 명상을 마치고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함박웃음을 내게 선물해 주었다. 외국인들이 사찰에서 경험하는 붓다볼 체험은 불교가 전하는 내면의 평화로움과 자유로움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한 달에 한 번, 수원구치소 법회에서도 붓다볼 소리를 전한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에게 붓다볼 소리는 관자재보살의 깊은 반야바라밀다의 법음이기도 하다. 불안과 근심걱정으로부터 한순간이라도 평화로울 수 있는 지혜의 소리로 다가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사바세계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으련다. 중생들이 아파하는 그곳에 있고 싶다. 그곳에서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것을 붓다볼에 실어 소리 없는 붓다의 메아리가 될 수 있기를 발원해 본다.



선정 스님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교수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⑪ 혜능 대사의 오도송

# 본래 마음인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디에 번뇌가 있으리오**

**깨달음은 본래 형상이 있는 보리수와 같은 것이 아니며(菩提本無樹)**
**밝은 마음 또한 거울경대(鏡臺)와 같은 모양이 없네.(明鏡亦無臺)**
**본래 마음인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佛性常淸淨)**
**어디에 번뇌가 있으리오.(何處有塵埃)**

〈돈황본 육조 법보단경〉

혜능(慧能, 638~713) 대사는 당나라 사람으로 선종의 제6조 조사다. 그의 문하에 남악 회양, 청원 행사, 남양 혜충, 영가 현각, 하택 신회 등 기라성 같은 제자가 나타나 중국 선불교의 황금시대를 주도하였다.

선종은 팔만대장경의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경전불교를 거부하고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教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주창한다. 당시 금보다 귀하여 구하기 어려운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나 마음을 고요히 하는 선정(명상, 알아차림)을 통하여 자기의 본래마음인 불성을 찾아 스스로 부처가 되자는 새롭게 일어난 실천불교 운동이다.

혜능 대사의 설법집인 〈육조 법보단경〉은 선종의 소의경전이다. 제자인 법해 스님이 모아서 기록하여 편찬한 선사어록이다. 혜능 대사의 설법 내용이 부처님 말씀처럼 훌륭하다고 하여 '경(經)'이라 존숭하였다.

혜능 대사의 오도송은 신수 대사와 함께 견성오도를 읊은 오도송의 시초로 〈육조 법보단경〉에서 전하는 드라마틱하고 전설적인 게송이다. 1·2구 "깨달음은 본래 형상이 있는 보리수와 같은 것이 아니며, 밝은 마음(거울) 또한 경대(鏡臺)와 같은 모양이 없네"는 〈반야경〉의 무아(無我) 공(空) 사상을 표현하였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실체가 없는 허망한 현상체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형상이 있는 사물이 아니다. 따라서 깨달음을 보리수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마음 역시 실체가 없으므로 경대에 비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깨달음도 마음도 형상이 없는 무상(無相)이며 공(空)이다.

3·4구 "본래 마음인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디에 티끌(번뇌)이 있으리오"는 불성이 본래가 청정하고, 더구나 무명번뇌는 실체가 없는 환상(幻相)과 같이 공(空)한 것이므로, 우리의 본래마음은 티끌번뇌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마음의 본래자리를 읊은 것이다.

우리의 본래 마음인 불성(자성, 본래심)은 항상 공적(空寂)하고 청정해 번뇌의 티끌이 낄 수가 없다. 번뇌는 본래 그 실체가 없다. 홀연히 텅 빈 하늘에 먹구름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이 불면 곧장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번뇌는 내 마음에 나그네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객진번뇌(客塵煩惱)라 하고, 본래 없는 본무번뇌(本無煩惱)라고 한다.

1922년에 발견된 돈황본 〈육조법보단경〉(당나라 때 필사본 편찬) 이후(송원시대)에 편찬된 △혜흔본 △흥성사본 △대승사본 △설숭본 △덕이본 △종보본에서는 혜능 대사의 오도송 3구인 '불성상청정(佛性常淸淨)'이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로 바뀌게 된다.

달마 대사가 2조 혜가에게 전승한 〈능가경〉의 교리가 복잡한 불성사상이 5조 홍인 대사에 와서 만민이 평등한 존재임을 밝힌 무아(無我) 공사상이 나타난 〈금강경〉이 혜능에게 전승되었다.

작금에 우리 교단에 선명상 열풍이 불고 있다. 일상의 삶 속에서 5분 선명상을 통해 본래의 자기 마음을 찾아 하루 5분이라도 부처가 되어 보자.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 사찰 이모지 누락과 종교 감수성

지난 2017년 취임 후 첫 성탄절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의 한 마디는 많은 파장을 낳았다. 다문화·다인종·다종교 사회인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은 이웃종교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예수가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무슬림과 유대교 신자들이나 불교와 힌두교 신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인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해피 홀리데이'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적 감수성'이 어떻게 발현이 돼야 하는지를 만날 수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의 이모지에 사찰만이 누락돼 문제가 되고 있다. 기독교의 '교회', 이슬람교 예배당인 '모스크'와 '메카 카바 신전' '힌두교 사원' '유대교 회당' 심지어 일본 토속종교인 신도의 '토리이(とりい)'까지 '종교적 장소' 이모지 카테고리에 자리 잡고 있지만, 불교의 사찰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종교를 상징하는 이모지에서도 불교는 '법륜'을 제외하면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기독교 이모지는 십자가, 교회, 천사 등 6개에 달했다. 이 같은 '불교 패싱'의 상황은 애플사의 아이폰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된다.

어도비가 2022년 발표한 '글로벌 이모지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의 56%가 말보다는 이모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임을 동의했고, 86%는 직장에서 이모지를 활발하게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모지는 단순히 스마트폰에 탑재된 서비스 기능을 넘어 일상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공공재의 성격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종교의 이모지가 누락돼 있다는 것은 해당 종교의 신도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는 행위와도 같다. 실제, 불교 단체와 불교 관련 여행사의 포스팅 중에는 '일주문'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일본 신도의 토리이를 사용한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제라도 '종교적 감수성'이 담긴 이모지로 수정되길 바란다.



김민재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아들 희귀병에 홀로 벌이는
엄마의 외로운 싸움

스리랑카 이주민 김제이씨 아들 노강현군
관절에 종양 자라는 희귀병, 이미 수술만 16번
성인 될 때까지 최소 10년간 수차례 수술받아야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